

다음달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자영업자들 '울상'

소득기·컵 등 다회용품 구입 부담
1인 운영 영세업소 설거지 걱정도
"일회용 폐기물 줄이기 공감하나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데" 호소

"날이 풀리면서 유동 인구가 늘 것 같은데 걱정도 늘었어요. 매출은 안나오는데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약 33㎡(10평) 규모의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 A(여·38)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늘었다.

코로나19가 환경이던 지난해 초 영업을 시작한 A씨는 당시만 해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 지금까지 줄곧 매장 내 손님들에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음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서 다회용품을 대량으로 구매,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당장 다회용품을 소독할 수 있는 열탕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약 50만원에 달한다. 한달 매출이 300만원 미만인데 임대료와 고정비용 등을 제외하면 큰 돈"이라며 "추가로 머그컵 등 다회용품도 구매해야 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을 다시 금지기로 하면서 영세한 소규모 동네 카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 흐름에는 동의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에 아직까지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아 자칫 다회용품 제공 과정에서 손길 닦이지 않아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유통상도 있고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다회용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영세업자들 사이에서는 다회용품 추가 구입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다시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 수제버거 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도 최근 나이프·포크 구매를 위해 예기치않는 비용을 들였다.

B씨는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를 지급했는데 4월부터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대료가 200만원에 달한다길래 최근 다회용 포크와 나이프를 구매했다"며 "아

직 일회용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쓸 데가 없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매장이 더 좁아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업주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A씨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요즘엔 일회용품에 음료를 담아주는 게 당연시 돼있는데, 4월부터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품로 제공했다가 손님들이 나갈 때 일회용품에 바꿔 담아줘야 하게 돼 두 가지를 모두 비치해야 하니 부담도 커지지 않겠냐"고 했다. 주인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회용기 설거지까지 챙겨야 하게 됐다는 불만소도 나온다.

자영업자들 고민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24일 이후에는 일회용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소재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바뀐 규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품 발생량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 양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에 견주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선후보 캠프 인사 사칭 8000만원 가로챘 30대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쓸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
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나섰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신을 민주당 대선 후보측 캠프 인사라고 사칭한 30대 A씨가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C씨의 지인 C씨에게 선거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6100여만원, 지인 C씨에게 2000여만원 등 총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속이고 캠프 정책위원을 맡았다고 소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 민주당 명함, 임명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속한 조직과 직함이 민주당 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검찰청사 후기 난동' 8년 선고

검찰청사에서 후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광주·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점을 할 수 있다"면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자 신병처리 잇따라

하청업체 현장소장·전무 이어 감리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관련자들에 신병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A건설 현장소장과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감리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하청업체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들로, 39층 시공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가

면, 하부층 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리들은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23일(감리 3명) 각각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 3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리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말근무 수당 안주고 주 52시간 제대로 안지켜요"

'직장갑질 119' 제보 366건 중
임금·노동시간 관련이 108건

"업무 특성 상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했는데 주말근무 수당, 대체휴무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1-2월 직장갑질 119에 들어

온 제보 36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제보는 108건으로 29.5%에 달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주장들이 여전한 셈이다. 제보 대부분은 연장, 야근, 휴일근무를 강요하고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라는 단체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제 50조)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제 53조) 등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당사자와 합의' 없이 주60시간, 주70시간 불법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당연히 쪼야 할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돼 있다는 계약서를 내세워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법적으로 의 제기도 못하게 하는 '부채소 특약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를 맺는 경우도 있다는 게 단체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식권을 빼앗으며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사건번호 [기타]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2019타경 54535	1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397 504㎡ [계외외수 대 115,603,100원]	대	115,603,100	일괄매각, 계외외수, 수목포함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53535	1	순천시 해룡면 정재봉길 323 2단층93.45㎡ [계외외수 대 18,153,600원]	단독주택	18,153,600	일괄매각, 계외외수, 수목포함, 공구자수선대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2780	1	여수시 삼왕동 1371-6 232㎡ [공유자전속회 1/5지분]	대	18,153,600	일괄매각, 계외외수, 수목포함, 공구자수선대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3906	1	순천시 주암면 오산리 596-1 2970㎡ [공유자 전 3,690,000원]	대	3,6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공유자수선대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4526	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421-2 198㎡ [공유자 전 7,838,500원]	대	7,838,500	공유자수선대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2841	1	여수시 좌수영로201, 상가동 지하층 2호 34.47㎡ [신기동, 주공아파트] 등복번호: 116나1327 차명: K5 연식: 2020[제3차집수정예계보관]	대	36,200,000	일괄매각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6669	1	사용본거지: 여수시 쌍봉로177 101동 305호 [신기동, 주공아파트] 등복번호: 116나1327 차명: K5 연식: 2020[제3차집수정예계보관]	자동차	25,000,000	보관: 순천시서면 압곡리568-1, 순천 자동차매상사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
2021타경 57414	1	사용본거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673-55 등복번호: 97나6655 차명: 엑스터스프트 연식: 2021[제3차집수정예계보관]	자동차	30,000,000	보관: 순천시서면 압곡리568-1, 순천 자동차매상사	2021타경 5123	1	선정항: 고촌군 금산면 섣막동 117-1 199㎡ [계외외수 대 61,696,000원]	선박	61,696,000	보관: 여수시국동 14번지(3차위임)에 이어 미리 대리인 지체